

생태문화이음길은?

생태문화이음길은 미추홀의 도시의 지형을 이어내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구분지어진 행정단위를 넘어서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산, 물, 길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이어내어 걸어보고, 보다 큰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산, 물, 길은 필요에 의해 외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큰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 물, 길 등의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고 원형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해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 구조를 직시하는 과정은 도시를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문화이음길 8개 코스를 안내자와 함께 걷다보면, 각 장소들이 어떤 지형 속에 구성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만나게 됩니다. 또한, 공간마다에 묻어있는 다양한 시간 속 삶의 양식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아가 지역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더 많은 존재들 동, 식물, 공간 등이 함께 공존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8주 간의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보는 것을 나누면서, 길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문학산길2’

목적			
· 학익배수지의 역할과 미군부대 유류저장소의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다. · 학산서원터와 중바위, 갑옷바위의 설화, 송암 박두성 선생에 대해 살펴보고 삶의 양식에 대해 고찰한다.			
코스			
양토마을 ▶ 학익배수지 ▶ 문학레포츠공원 ▶ 학산서원터 ▶ 삼호현고개 ▶ 중바위 ▶ 갑옷바위 ▶ 연경정 ▶ 노적봉 ▶ 송암점자도서관, 시각장애 인복지관			
필요물품	마실 물, 편한 복장, 등산화 혹은 운동화		
거리	5.5km	소요시간	3시간

1. 양토마을



‘양지바른 마을(陽土)’이 아니라 43년 전쯤 용현동 철길 밑에서 ‘토끼 두 마리(兩兔)’를 키우던 농장주인 아저씨가 있었다. 그는 이곳으로 와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토끼를 기르기 시작하여, 토끼털을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을 ‘양토마을’이라 했단다.

2. 학익배수지



1994년 건설된 학익배수지는 시설용량 2만 톤으로 중구 연안동과 남구 용현·학익동 등에 급수를 공급했다. 이후 2020년 시설용량을 4만 톤으로 증설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인조잔디 테니스장 2면 등 체육공원을 조성했으며, 2022년 6월에는 배수지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테니스장 6면을 추가로 조성했다.

3. 미군 유류저장시설



문학산에는 1953~1968년 24개의 미군 유류저장시설이 있었다. 저장 용량은 무려 1천320만 ℓ로 인천항에서 문학산까지 이어진 송유관을 이용해 유류를 이송 저장했다. 그리고 수인선 등 전철을 따라 있던 송유관 등을 통해 전국의 미군기지로 유류를 공급했다. 배수지 인근에도 저장시설이 있었는데 유출된 기름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를 마치려했으나 현재까지도 오염된 토양 정화를 끝내지 못했다.

4. 문학레포츠공원



문학레포츠공원은 문학산과 연결되는 연경산 내에 조성된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수목원지구와 레포츠공원 시설로 되어있다. 체육시설로는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과 각종 운동시설이 있다. 수목원지구는 친환경생태공간으로 산책로와 휴식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

5. 학산서원터



학산서원은 숙종 28년(1702) 이정빈 등이 학문과 교화에 힘을 썼던 인천부사 정 관재 이단상을 추모하는 서원을 건립하고자 국왕에게 상소해 왕의 허락으로 숙종 34년(1708)에 건립됐다. 건립과 동시에 정일빈 등이 사액을 청해 인천의 유일한 사액 서원(국가의 공인을 받아 왕으로부터 서원 이름 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하사 받은 서원)이 됐다. 영조 2년(1726)에는 선정을 펼친 그의 아들 이희조를 추가 배향했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에서 ‘학산서원(鶴山書院)’이라 새겨진 와편이 발견됐고 그 주변에서 재실과 강당, 사당 건물 초석이 확인됐다. 그러나 도시 확장과 함께 다시 유실됐고 그 이후 문학산터널공사로 인해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

6. 삼호현고개



백제의 사신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이별했다. 사신들도 이 삼호현에 이르러 저 멀리 보이는 별리현에 서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별을 안타까워했다. 사신 일행은 “잘 있거라, 그동안 잘 있거라. 다녀올게, 잘 있거라.” 하며 이별 소리를 세 번 크게 외치면서 이 고개를 넘었다. 사모지고개, 삼해주현이라 한다.

7. 중바위



옛날 청학동에 사는 스님이 시주를 하러 학익동으로 가기 위해 매일 이 고개를 넘어 다녔는데, 어느 날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여쁜 여인이 술잔을 받쳐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여인은 스님에게 술 석 잔을 공손히 바치고는 사라졌다. 그 일은 매일 반복됐다. 그러다 어느 매우 무더운 여름날 갈증을 이기지 못한 스님은 여인에게 술 석 잔을 받아 마시고도 성에 차지 않자 한 잔만 더 줄 수 없냐고 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바위 뒤로 사라졌고 다시는 술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은 여인이 사라진 바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로 바위를 받으며 “술 한 잔만 더 주오.”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때 머리로 받은 자리에 구멍이 생겼고 무릎 자국과 손자국이 뚜렷이 새겨졌다. 욕심을 경계하라는 설화다. 중바위 뒤쪽에서 보면 중 바위가 남근(男根) 모양이다. 아들을 얻고자 기원하는 바위인 ‘기자암(祈子巖)’을 중심으로 한 제의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갑옷바위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느 장수가 이 바위 아랫부분에 돌함을 파고 자기 갑옷과 투구를 감춘 다음 그 위에 뚜껑바위를 덮어놓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바위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런데 한 번은 문학산 꼭대기에 있는 안관당 지기가 이 바위를 깨뜨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확인할 작정으로 뚜껑바위 아래쪽을 망치로 쳐 깨뜨렸다. 그러자 정말 청천벽력이 치고 천지가 진동해 당지기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

9. 연경정



연경정은 해발 175.86m의 연경산 정상에 1980년대에 세워진 정자이다. 세워진 초기에는 주변에 심은 나무들이 자라지 않아 개방되지 않았던 문학산 정상과 날이 맑으면 덕적도까지 조망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수림이 우거져 정자에서 조망 되는 곳이 거의 없어 휴식을 취하는 것 외에 정자에서 조망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10. 노적봉



148.9m의 노적봉은 문학산 줄기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봉우리이다. 『해동 지도(海東地圖)』에는 제월산(霽月山)이라 표기되어 있다.

정상에 전망대가 있는데 멀리는 오이도부터 연수구, 청량산, 송도신도시, 인천대교 까지 조망할 수 있다. 송도신도시와 옥련동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한나루와 능허대, 서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명소였다.

11. 송암전자도서관



송암전자도서관은 1999년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설립되었는데 2017년 11월 신축 개관한 인천 유일의 점자도서관이다. 시각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력자원봉사, 녹음자원봉사 등 지역주민의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글 점자인 '혼맹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기념관이 있어 반드시 둘러볼 필요가 있다.